



수입쌀 우리 밥상 공략 초읽기

칼로스쌀 324t 출고...대형식당·단체급식소 통해 유통 가능성

20kg당 4천원선 저렴

미국산 밥쌀용 칼로스 쌀의 공매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번 주 중 소비자들에게 시판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입쌀의 우리 식탁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가정에서는 당장 칼로스를 맛보기가 어렵겠지만, 이 수입쌀이 지역 내 대형 식당이나 단체 급식소 등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커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할인점에서 우리쌀이 미개상 품으로 전락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에서 수입쌀이 시판됨에 따라 정부의 제대된 쌀 가격 지키기와 우리 쌀 소비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24t의 칼로스 쌀을 낙찰받은 업체들은 지난 14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창고에서 낙찰 물량을 본격 출고하기 시작했다. 특히 2차 공매 때 10kg 짜리 포대로 88t과 20kg 짜리 214t을 낙찰받은 12개 업체의 대부분은 양곡 중도매인으로, 낙찰받은 칼로스 쌀의 상당량을 일반 쌀 소매상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농협 측은 칼로스 쌀이 20kg 기준 3만6천~3만8천 원선에 시중 판매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매된 칼로스가 20kg당 평균 3만1천200원대에 낙찰된 만큼 할인점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실제 소비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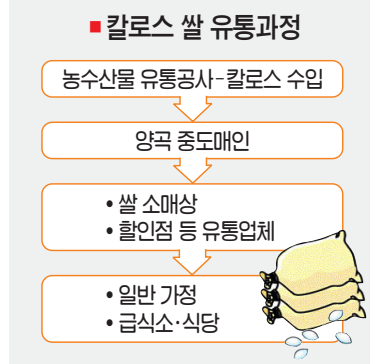
게 판매하는 값은 수송비와 이윤 등을 감안, 낙찰가보다 5천~7천 원가량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예이다.

이 같은 가격대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에서 국내산 쌀이 20kg 들이 한 포대에 평균 4만 원선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4천 원(10%)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전남도와 농협 측은 공매된 칼로스가 광주·전남지역 할인점 등 대형 유통

업체에서 당장 판매되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와 농협 측은 그러나 칼로스가 대형 급식업체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이나 학교 급식소 등 단체 급식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칼로스의 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저렴한데다, 유통업체 매장에서는 '칼로스'라는 상표가 드러나지만 단체 급식용으로 사용될 경우 밥쌀용 쌀이 국내산



인지 칼로스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목포 '해상 불꽃쇼'

국내 최초로 열린 '해상 불꽃쇼'가 지난 15일 밤 목포 해상에서 펼쳐졌다. 이날 불꽃쇼에는 2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길이 3km에 이르는 목포 평화의 광장 앞 해변도로와 영산호 하구인 등이 밤새 북새통을 이뤘다. 해상 불꽃쇼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목포해양문화축제의 이벤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열렸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與, 여수엑스포 남북 공동개최 제의 표의식 '헛공약'

시간 촉박·지리적 한계...여건상 불가능

전남도·여수시 강력 반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급조된 표몰이식 헛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지난 3월 호남고속철 정차역 추가 건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가 광주·전남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던 열린우리당이 이번에는 2012년 여수엑스포를 북한과 공동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는 엑스포 남북 공동 개최는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지난 14일 목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개최 여부가 확정될 여수엑스포가 북한과 공동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에 제의할 예정"이라며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협의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북한이 세계박람회기구(BIE)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라 가입을 권고한 뒤 공동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는 정 의장의 발언이 전해진 이후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남북 공동 개최 반대'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간차원의 중앙유치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한 마당에 여당 대표가 갑자기 개최 자치단체인 전남도나 여수시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남도는 엑스포 규정상 6년 전까지 유치신청을 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2012년 엑스포는 올 상반기 중 BIE(세계박람회기구)에 유치신청을 해야하는데, 북한과의 공동 개최 신청은 시간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지난 1893년 세계박람회 시작 이후 엑스포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공동 개최된 적이 없으며 ▲북한과 여수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멀다는 점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수 조 원대의 막대한 사회기반시설 조성 비용도 결국 한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점 등도 공동 개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북한과의 공동유치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정 의장의 발표로 처음 알았으며, 엑스포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쪽으로부터도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유치신청과 BIE 현지조사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상황에서 발표된 '북한과 공동유치'라는 정부방침이 여수엑스포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장은 지난달 7일 대전에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신설을 공약한 데 이어, 군산에서는 정읍을 신설을 약속해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전남신용보증재단
본점 이전
이전 일자: 4월 17일(월)

- **위치**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LG빌딩내 6층)
- **문의** 전화: (061) 729-0600 팩스: (061) 729-0608~9
- **홈페이지** http://www.jnsinbo.or.kr



79억2천만원의 경매시작가로 경매되는 '화가와 모델'(1964년 작)

피카소 걸작 첫 국내경매

'화가와 모델' 등 5점

거장 피카소의 걸작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 경매에 부쳐진다. 파블로 피카소(1881-1973) 작품 5점이 오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리는 '피카소 유화 프리뷰전' 기간에 전시·경매된다.

경매 대상작은 ▲화가와 모델(1964·유화) ▲누워 있는 여인의 누드(1964·유화) ▲의자 위의 부엉이(1947·유화) ▲세 여인들 1 ▲세 여인들 2.

이 중 '화가와 모델'은 경매 시작가가 660만 유로(약 79억2천만원)이며, '누워있는 여인의 누드', '의자 위의 부엉이'는 각각 560만 유로(약 67억 2천원), 148만 유로(약 17억 7천만원)로 정해졌다. /윤영기기자 zenfoot@

與 "이명박시장 여성 동원 별장파티"

한나라 "사실 무근...법적 대응"

열린우리당은 16일 이명박 서울시장에 소위 '황제테니스' 논란의 핵심 인물이던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과 경기도의 한 별장에서 파티를 함께 가질 정도로 특수한 관계임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우리당은 이 시장과 선 전 회장이 린선거대책위와 법률구조위 연석회의를 가진 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

러나 한나라당과 서울시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관련기사 3면〉 우리당은 이 시장과 선 전 회장이 참석한 '별장 파티'는 지난 2003년 10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별장에서 이뤄졌으며, 이 파티에는 30대 중반의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

간 명의 여성들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측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별장 파티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연합뉴스 한나라당 당사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별장 파티'는 없었고 모임 날짜나 별장 소유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나눔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02-977-7390 FAX: 02-977-2202

제51회 호남예술제 내일 접수 마감
 ▶홈페이지: www.kwangju.co.kr ▶문의: 062-220-9541, 222-8111

우리 쌀은 맑은 샘물같은 자연의 맛입니다

우리 쌀이 좋은 5가지 이유

1. 한국인의 제철에 맞는 우리 쌀이 자연에서 자랍니다.
2. 굵고 단단한 알곡이 건강을 증진 시켜줍니다.
3. 무미 단맛에 적당한 구수한 맛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4. 제철 수확된 그대로의 자연스런 맛이 있습니다.
5. 수입쌀엔 없는 우리 농민들의 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쌀 사랑하기, 농민사랑해줘요

농협